

도선(道詵)의 예언서와 정경(鄭經), 그리고 정진인*

정 응 수**

(e-mail : chunges@nsu.ac.kr)

< 목 차 >

- | | |
|-----------------------|-------------------------|
| 1. 서론 | 4. 도선의 예언서와 정경, 그리고 정진인 |
| 2. 『조선왕조실록』 속의 도선 | 5. 남은 문제들 - 결론을 대신하여 |
| 3. 윤희의 제후론과 정경의 조선침공설 | |

키워드 : 道詵の予言書(Dosun's prophecy), 『朝鮮王朝實錄』(The True Record of the Joseon Dynasty)、三藩の亂(Revolt of the Three Feudatories)、鄭經(Zhèng Jīng)、鄭真人(Jeong True Man)

1. 서론

『도선비결(道詵秘訣)』의 저자는 도선(道詵, 827-898)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 말 영암에서 태어난 도선은 15세에 출가하여 월유산 화엄사(華嚴寺)에서 승려가 되었다. 선종의 일파인 동리산문(桐裏山門)의 혜철(惠徹)에게 배운 후 광양 옥룡사(玉龍寺)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며 지냈다. 그가 옥룡자나 옥룡이란 자를 사용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옥룡사는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제자들로 늘 붐볐지만, 그는 훗날 승려보다 풍수지리학의 대가로 더 유명해졌다. 그가 당에 유학하여 밀교승 일행(一行)에게 풍수지리학을 배웠다는 『고려사』의 기록도 이러한 평가에 일조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는 중국에 유학한 일 자체가 없다. 스승 혜철과 제자 경보(慶甫)의 유학이 와전되어 이런 기

* 이 논문은 2018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일본학(한일비교문학·비교문화)

록이 등장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어쨌든,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기록되었다고 평가받는 『고려사』에까지 이런 잘못된 정보가 수록될 정도로 한국의 풍수지리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풍수지리학의 역사가 신라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그 때문이라 한다¹⁾.

『도선비결』이란 책 이름은 고려시대부터 등장한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이 현재 『정감록(鄭鑑錄)』에 전하는 『도선비결』과 얼마나 같고 다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전하는 『정감록』의 『도선비결』은 조선왕조의 운명에 관해 언급한 당나라 일행선사의 예언을, 도선이 기록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신라 말의 승려가 고려 왕조를 뛰어넘어 아직 건국되지도 않은 조선왕조의 운명을 예언하는 책을 썼다는 말이다. 따라서 『도선비결』은 당연히 위서(偽書)다. 이것은 물론 그의 저서라며,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도선비기』나 『송악명당기』, 『도선답산가』, 『삼각산 명당기』 등의 많은 비기, 예언서에도 해당된다. 그럼에도 그가 지었다는 예언서는 끊임없이 등장한다. 예언서가 가진 개방적인 성격 때문이다. 예언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실을 흡수해 끊임없이 텍스트를 재창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열린 텍스트라 할 수 있다²⁾. 그리고 이 열린 텍스트를 형성하는 과정에 타이완의 정경(鄭經, 1642-1681)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도선비결』 그 어디에도 정경과 관련된 기술은 없다.

정경은 명청 교체기에 동아시아를 무대로 활발한 반청복명운동을 펼친 정성공(鄭成功, 1624-1662)의 아들이다. 1662년,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점거하고 있던 타이완을 탈환하고 석 달 후 정성공이 죽자, 정경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반청복명운동을 전개하며 1664년 타이완에 동녕왕국(東寧王國)을 세웠다. 1673년 삼번(三藩)의 난이 일어나자 이에 적극 호응하여 복건성과 광둥성 일부를 장악해 정성공 이래 일찍이 없던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1680년 대륙의 거점을 모두 상실하고 타이완으로 귀환하여 이듬해 1월 40세의

1) 도선의 생애에 관해서는 백승중(2007)의 『예언가 우리 역사를 말한다』(푸른역사)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최병현(1975)의 「도선의 생애와 나말여초의 풍수지리설」(『한국사연구』 11, 한국사연구회)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했다.

2) 열린 텍스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정되지 않은 텍스트라는 말이다. 따라서 텍스트가 활자로 고정되는 순간 개방성을 상실하게 된다. 『도선비결』도, 1923년 호소이 하지메(細井肇)가 『정감록』을 비롯한 조선의 여러 비결을 수집해 출판한 『정감록비결집록(鄭鑑錄秘訣輯錄)』에 수록되면서 그 개방성을 잃게 된다.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내분을 거쳐 그 뒤를 이은 것은 12세의 차남 정극상(鄭克塽, 1670-1717)으로 불과 2년만인 1683년 청에 항복하고 만다. 이로써 3대 23년간 계속된 정씨 타이완 정권은 막을 내린다. 그런데 이 정씨 일가의 활약상이 때로는 사실대로, 때로는 부풀려서 조선에 전해지며 조선의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당시 조선에서는 이씨 대신 정씨가 조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도선 명의의 예언서가 유포되고 있었고, 이 타이완의 정씨 일가를 정진인, 해상진인, 정도령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둘, 즉 도선 명의의 예언서들과 정경이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밝히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까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정씨 일가가 사실은 조선의 정감록 신앙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밝혀줄 것으로 생각한다. 단 그전에 잠깐, 조선조정이 도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으로 표기)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2. 『조선왕조실록』 속의 도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전하는 『도선비결』은 조선왕조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금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저자인 도선도 불온시되었다. 그러나 조선 건국 초만 해도 도선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다음의 기록을 보기로 하자.

서운관(書雲觀)에서 상언(上言)하였다.

“도선(道詵)이 말하되, ‘송도(松都)는 5백 년 터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4백 80년 터이며, 더구나 왕씨(王氏)의 제사가 끊어진 땅이라.’ 하는데, 지금 바야흐로 토목공사(土木工事)를 일으키고 있사오니, 새 도읍을 조성(造戍)하기 전에 좋은 방위로 이행(移幸)하소서.”

도평의사사에 내리어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³⁾.

『실록』에 도선이 최초로 등장하는 부분인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3) 『조선왕조실록』, 태조 3년 9월 6일

는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자마자, 역성혁명을 한 군주는 모두 도읍을 옮긴다며, 당시 유행하던 도선의 풍수지리를 이용하여 1392년 8월 한양천도를 결정한다⁴⁾. 그러나 배극렴, 조준 등 개국공신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신하들에게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도록 지시한다. 이듬해 1월에는 새 후보지로 계룡산이 거론되자 서둘러 현지를 답사한 다음 곧바로 새 도읍지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개경의 내성과 화원도 수리시켰다. 이 상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 상서는 지금 송도에서 벌이는 궁궐 수리를 중지하고 계룡산의 신도가 완성될 때까지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내용인데,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도선의 소위 ‘지기쇠왕설(地氣衰旺說)’이다. 지기쇠왕설이란 모든 땅은 그 조건에 따라 길흉화복을 갖고 있으며, 이 길흉화복은 일정한 것이 아니고 그 용량과 시효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⁵⁾. 그런데 송도는 그 시효가 500년이고, 이미 왕도로서 500년이 지나 그 지기가 다했으므로, 이제 왕도로서의 구실이 끝났으니 새로운 왕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계룡산의 신도읍 공사는 그해(1393년) 12월 중단된다. 하륜이 계룡산이 안고 있는 풍수지리적인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후보지로 떠오른 곳이 무악(毋岳)이다. 물론 명당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하륜이 추천한 곳이다. 그러나 현지답사를 하고 온 사람들은 모두 무악이 도읍이 될 수 없는 땅이라며 반대했다. 반대론자들은 먼저 “왕씨가 5백 년에 끝난 것은 운수 때문이지 지리 때문이 아니⁶⁾”라고 한 다음, 중국을 봐도 주나라나 진(秦)나라, 한나라가 모두 관중(關中)을 도읍으로 삼았고, 변량은 5대(代), 금릉은 6조(朝)가 도읍했다며, 개성을 그대로 도읍으로 삼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말하자면 도선의 지기쇠왕설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또한 새 도읍지로 거론된 무악(毋岳)에 대해서는 “무악의 터는 명당이 심히 좁고 뒷주룡(主龍)이 낮으며, 수구(水口)가 쌓이지 않았다”며 길지(吉地)가 아니라고 반대한 것을 보면, 그들도 풍수지리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은 송도 5백 년 도읍설, 다시 말해 지기쇠왕설은 부정하고

4) 장지연(2000) 「여말선초 천도논의에 대하여」 『한국사론』 4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p.23.

5) 김기덕(2006) 「한국 중세사회에 있어 풍수·도참사상의 전개과정」 『한국중세사연구』 21, 한국중세사학회, p.147.

6) 『조선왕조실록』, 태조 3년 8월 12일

있지만, 명당론으로 대표되는 도선의 풍수지리 전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⁷⁾.

그런데 그 어느 쪽이든, 다시 말해 도선의 주장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도선을 풍수지리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분위기는 태종 이후에도 계속된다. 예를 들어 1441년(세종 23년) 경복궁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전 반대론자들이 “경복궁이 송도(松都)의 도선(道詵)이 잡았다는 구정(毬庭)과 형세(形勢)가 서로 같다⁸⁾”며 도선의 명당론에 기대어 궁궐 이전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물론 이전을 주장하는 쪽도 도선의 명당론에 의거해 이전을 주장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즉 이전을 주장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선의 풍수지리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조대에 이르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1457년(세조 3) 5월 26일자 실록을 보면, “《고조선 비사(古朝鮮秘詞)》, 《대변설(大弁說)》, (중략) 《지화록(地華錄)》, 《도선 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 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고 팔도관찰사에게 유시한 내용이 나온다. 말하자면 금서목록을 전국에 배포한 셈인데, 이 중에 도선이 저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도선한도참기』란 서명도 보인다. 이 서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할 방법이 없지만, 금서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조선조정나 임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적혀있었을 것이다.

1453년(단종 원년) 10월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전권을 장악하자, 함길도 도절제사 이징옥이 이에 반발하여 난을 일으켰다. 난은 이징옥이 부하 장수에게 살해당하면서 바로 진압되었지만,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시중에는 온갖 유언비어가 떠돌았다. 이에 조정에서는 1454년 9월 유언비어와 관련하여 400여 명을 처벌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별 효

7) 이 신도읍 문제는 한양과 개경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태종대에 이르러 한양으로 정착되면서 끝이 났다. 이 논쟁에 대해 이태진(1994)은 「한양 천도와 풍수설의 폐퇴」(『한국사 시민강좌 14』, 일조각)에서 기존 풍수설이 폐퇴하고 유가적 지리론이 승리한 것이라 했다. 이에 반해 김기덕은 앞의 논문에서, 이 논쟁에 대해 유학자들이 전통풍수사상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도참풍수가 폐퇴한 것이지 전통적인 풍수사상 자체가 폐퇴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둘 다 도선을 풍수가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8) 『조선왕조실록』, 세종 23년 6월 9일

과가 없었는지, 이듬해 1월에는 유언비어 유포자를 신고하면 포상한다는 명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퍼진 유언비어는 왜구가 쳐들어온다거나 수양대군이 군사를 풀어 백성을 다 죽일 거라거나 수양대군이 장차 단종에게 이롭지 않을 거⁹⁾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유언비어의 내용대로, 1455년 윤 6월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한다. 1456년 6월에는 성삼문, 박팽년 등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어 처형당하는 소위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는 등 정국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위에 열거한 금서에는 아마도 이러한 정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후에도 이러한 불온서적 수거 명령은 종종 발령되는데, 도선과 관련된 것으로는 1469년(중종 즉위년)의 금서목록에 등장하는 『도선참기(道誼讖記)』란 책이 있다. 물론 이 『도선참기』와 앞서 세조 3년에 금서로 지정된 『도선한도참기』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도선참기』란 책 이름은 이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2년 전인 1467년(세조 13)의 『실록』에 이미 등장한 적이 있다. 즉 8월 1일과 2일자 『실록』에 의하면, 학선이란 승려가 『도선참기』에 “성왕이 위에 계시어서 불교를 숭상하나, 병정(丙丁)년간에 포악한 왕이 즉위하여 불법을 다 허물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며, 함길도를 정벌하러 간 군사들이 회군할 때 삼각산의 승려들을 다 죽일 것이라는 말을 유포해 체포되었다고 하므로, 중종 즉위년의 『도선참기』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었을 것이다.

‘병정년간에 즉위한 포악한 왕’은 세조 2년과 3년이 각각 병자년과 정축년에 해당하므로 세조를, ‘함길도 정벌’은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러 간 관군을 가리킨다. 이시애의 난은 세조의 중앙집권 강화정책에 반발한 함길도 호족 이시애 형제가 1467년 5월에 일으킨 난으로, 『실록』에 등장하는 8월 초에는 이시애의 반란군이 토벌군에게 패퇴하던 시기였다. 이 난은 8월 12일 토벌군이 이시애를 비롯한 주동자를 처형하면서 끝이 나는데, 사찰을 지원하고 간경도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불교 진흥책을 편 세조를 불법을 멸하는 군주로 간주한 점이 흥미롭다.

1485년(성종 16)에는 도선의 비보설을 주장하는 최호원(崔灝元)이 탄핵을 당하면서 도선의 학설이 사도로 규정되었다. 성종이 좋아하던 최호원은 문과 출신이지만 풍수지리를 신봉하므로 육조의 하나인 병조(兵曹)의 참지로 적당치 않다고 하여 삭탈관직에 유배형까지 받았다. 이 논쟁 과정에서 도선은 ‘요승

9) 『조선왕조실록』, 단종 3년 1월 14일

(妖僧)’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이로써 도선의 학문은 정통 유학자가 다룰 수 없는 잡술이 되었다. 이로써 도선은 조선조정의 공론장에서 사라진다. 도선은 이제 정부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와 함께 도선의 예언도 변화한다.

16세기가 되면서 도선의 예언서가 조선의 멸망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1507년(중종 2) 윤 1월 25일의 『실록』 기사는 삼공을 시해할 모의를 한 조광보 등을 잡아 국문한 기사다. 그들은 도선의 『참기(讖記)』에 ‘10대를 전하여 국운이 다한다’고 나와 있다며, 이미 10대를 전한 중종의 시대가 되었으니 조선의 국운이 다했다고 한다. 따라서 조선이 곧 망할 것이지만, 지금 임금 곁에 있는 악한 자들을 제거한다면 국운을 3-40년 더 연장할 수 있기에 자기들이 그들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다. 도선의 『참기』를 거사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셈인데, 아무튼 당시 ‘10대가 지나면 조선이 망한다’는 내용이 기록된 도선 명의의 예언서가 존재했다는 말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조선의 멸망을 예언한 도선 명의의 기록이 등장한다. 이후 17세기가 되면 도선의 비기가 역모를 꾀하는 사람들과 관련되는 책으로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1618년(광해 10) 2월 9일자 기사를 보면 기자헌(奇自獻)이 도선의 비기를 얻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상소가 등장한다. 1675년 무렵에는 이씨조선이 망하고 정씨가 조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도선의 예언서가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정경이 이와 관련을 맺게 된다.

3. 윤희의 제후론과 정경의 조선침공설

1673년 11월 21일, 운남성의 평서왕 오삼계가 반청복명의 기치를 내걸고 반란을 일으킨다. 이듬해 3월에는 복건성의 정남왕 경정충이, 1676년 2월에는 광동성의 평남왕 상지신이 한발 늦게 이에 합류한다. 소위 삼번의 난이다. 타이완의 정경도 1674년 이에 호응하여 한때는 양자강 이남 일대, 사천, 섬서가 그들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후 1678년 8월 오삼계가 죽고 뒤를 이은 손자 오세번이 1681년 자살할 때까지¹⁰⁾, 이 난은 9년간이나 중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격랑 속에 몰아넣었다. 물론 조선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10) 진순신(1995) 『중국의 역사』 11, 권순만 외 옮김, 한길사, pp.26-33.

이 삼변의 난 이후 조선에서는 정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다. 정경이란 이름이 조선조정의 공식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이라 표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667(현종8)년 10월 3일이다. 이는 임인관 이하 표류민 95명의 심문 결과를 정리한 기사인데, 당시는 이들의 송환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기에 정경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¹¹⁾. 그러나 삼변의 난이 발발하자 정경과 관련된 여러 소문이 돌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록』을 검색하면 정경(정금, 정금사 포함)의 이름이 67번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삼변의 난 이후 기사가 58건이나 된다. 당시 조선에서 그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말해주는 수치이다.

당시 북경에는 조선이 정경과 연합하여 청을 침공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다. 1674년(현종 15) 8월 3일, 조선과 정경이 연합한다는 말이 북경에 전해져 북경 사람들이 동요를 일으켰다는 유창의 보고¹²⁾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청이 산해관 밖에 있는 방어시설을 보강하고 있다는 사절들의 보고¹³⁾도 잇따르고 있는데, 청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정경이 이러한 제휴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조선에 퍼져 있었다. 즉 정경군이 조선군과 연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선군 복장을 하고 청과 싸우거나¹⁴⁾, 조선군 복장을 구입하기 위해 정경군이 부평까지 왔다¹⁵⁾는 것이다.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정경과 조선의 제휴설이 상당히 현실감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때, 조선에서도 정경과의 제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윤희를 비롯한 북벌론자들은 삼변의 난으로 중국이 혼란에 처한 지금

11) 송환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강창룡(2004)의 「17世紀 中葉 中国人의 濟州 漂到 - 顯宗 8年(1667) 明나라 林寅觀 一行의 濟州 漂着과 處理를 中心으로」(『耽羅文化』 25,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pp.28-32)와 김문식(2012)의 「成海應이 증보한 『丁未伝信錄』」(『진단학보』 115, 진단학회, pp.100-102)을 참고할 것.

12) 『현종개수실록』, 현종 15년 8월 3일, 유창만이 아니고 진향정사 민점(숙종 즉위년 11월 23일), 심익현(숙종 1년 1월 26일) 등도 조선과 정경 연합군의 청 침공설이 북경에 퍼져 있었다고 한다.

13) 예를 들어 진향정사 민점은 “봉황성과 개주위에 장차 성을 쌓는다고 하는데,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유독 정금만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필시 우리를 의심하여 그렇게 하는 것인 듯합니다.”(숙종 즉위년 11월 23일)라 했다. 심익현(숙종 1년 1월 26일), 동지사 겸 사문사 북창군 이정(숙종 1년 3월 5일)도 우리 쪽을 향한 청의 방어시설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14) 『숙종실록』, 숙종 1년 4월 3일

15) 『숙종실록』, 숙종 1년 6월 3일

이야말로 청에게 당한 치욕을 씻고 명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경과 연합해서 청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경이 조선의 의리 없음을 따지러 침공할 것이라 했다. 다시 말해 조선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재조지은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청복명 운동을 벌이는 정경을 도와 청나라를 공격해야 하는데 오히려 청을 따르고 있으니, 정경이 이를 정치하러 올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소위 대명의 이론과 연계된 정경의 조선침공설이 등장하게 된다.

한편 당시 쓰시마번 정보에 의하면, 실제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청이 망한 후에 오삼계 등에게 추궁당할 것을 염려한 조선조정이 오삼계군에게 구원병을 보내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¹⁶⁾고 한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아무런 외적이 쳐들어 왔다는 소문이 나서 전국이 커다란 소란에 휩싸인다. 다음의 기록을 보기로 하자.

밤에 서울 안팎이 갑자기 경동하여, 호(胡)가 온다고도 하고 왜(倭)가 온다고도 하며, 집집마다 짐을 지고 나서고, 사녀(士女)가 붙들어 안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까지 하였는데,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정되었다. (뜬소문은 해서의 장련(長連) 등지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전언에 ‘왜선(倭船)이 이미 해안에 정박하여 해서의 여러 고을이 여리(閭里)를 텅 비우고 산골짜기에 도망하여 숨은 것이 며칠 되었다.’ 하였으므로, 안으로 경성에서부터 밖으로 삼남에 이르기까지 진동하지 않음이 없었다.)¹⁷⁾

1674년 9월 한양과 해서지방에서 벌어진 소란을 다룬 기사이다. 한양에 ‘호가 온다고도 하고 왜가 온다고도(或云胡來, 或云倭來)’ 하는, 바꿔 말해 ‘호일수도 왜일수도’ 있는 정체불명의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소문이 나서 한양만이 아니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피난하느라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소동은 황해도 장련 등지에서 잘못 전해진 소문, 즉 왜선이 황해도 해안에 정박하여 그 근처 사람들이 모두 산으로 도망하여 숨은 지 며칠 되었다는 소문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 ‘왜선’ 때문에 벌어진 소동인데, 이것이 한양에 와서는 ‘호일수도 왜일수도’ 있는 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1675년이 되면 이 ‘호일수도 왜일수도’ 있는 정체불명의 외적이 ‘정경의 수군’으로 바뀐다. 1675년 6월 3일 『실록』을 보면 “갑인년 10월¹⁸⁾에 해서

16) 林春勝·林信篤編(1981) 「對馬注進」 『華夷變態』 上, 동양문고총간제15, 동방서점, pp.107-109.

17) 『숙종실록』, 숙종 즉위년 9월 4일

지방으로부터 와언이 있기를 ‘경외가 크게 시끄러웠다.’ 하였고, 혹은 말하기를 ‘이는 괜히 놀란 것이 아니라 정금이 이끄는 수군이 해상에서 등주(登州)와 내주(萊州)로 향하였다고 바닷가의 사람들이 서로 전파하여 이 말이 나게 되었다.’고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즉 1674년 9월에 벌어진 해서지방의 소동이 ‘왜선’ 때문이 아니고 ‘정경의 수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처음 ‘왜선’에서 시작한 소란이 ‘호일 수도 왜일 수도’ 있는 적으로, 다시 ‘정경의 군대’로 바뀐 것이다.

물론 외적의 성격이 이처럼 바뀐 것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1675년 여름 무렵, 조선은 정경의 조선침공설로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즉 쓰시마에서 ‘정금이 이미 병선을 정돈하고 장차 본국과 함께 중원에 사변을 일으키려고 하여 귀국과 더불어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전일의 서계에 귀국은 막연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금의 군사가 마땅히 먼저 귀국에 이를 것이니, 교호하는 사이로서 고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19)’는 내용의 왜서가 도착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선 전역이 들끓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정경이 일본, 조선과 연합하여 중국을 구원하려 하는데 조선이 이에 응하지 않아서 정경이 먼저 조선에 쳐들어오려 한다는 이야기다. 이로 인해 “여염 사이에 소란이 크게 번져 마치 변란이 아침저녁에 일어날 것처럼 하였고 겨울 사이에 이르러 더욱 심했20)”다고 한다.

사회가 이처럼 혼란해지면 이를 틈타 유언비어나 와언들이 널리 퍼지게 되어 있다. 당시에 도 정경의 조선침공설을 뒷받침하는 여러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영남 인동(仁同)의 약목촌(若木村)에서는 무너져 내린 산벼랑에서 돌이 나왔는데, 그 돌에 ‘홍무(洪武) 후 310년에 산동의 마장군(馬將軍)이 군사를 이끈 폐’라 적혀 있었고, 이 때문에 사람들이 오삼계나 정금의 장수 중에서 마가의 성을 가진 자가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했다고 한다21). 정

18) 갑인년이 1674년이므로, 이 기록을 그대로 믿으면 해서지방에서 1674년 10월에 큰 소란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실록』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1674년 10월에 이러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앞에서 인용한 1674년 9월 4일의 기사만 있을 뿐이다. 게다가 같은 해 9월과 10월, 즉 한 달 간격으로 거의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19) 『숙종실록』, 숙종 2년 2월 15일

20) 「倭書를 偽造하여 人心의 動搖를 일으킨 자들의 治罪를 청하는 許積의 啓」 『국역비변사등록』 32책, 숙종 2년 3월 11일

21) 『숙종실록』, 숙종 1년 6월 3일

경의 침공을 예언하는 예언석을 등장시킴으로써 정경의 침공설을 더욱 그럴 듯한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도선의 예언서도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런데 이 무렵 정경은 복건성(福建省)의 천주(泉州), 장주(漳州), 장포(漳浦) 및 광둥성(廣東省)의 조주(潮州) 등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조선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산둥성이나 조선을 공격할 여력은 없었다. 복건성 연해지방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정남와 경정충(耿精忠)과 쟁탈전을 벌이는 중이었고²²⁾, 또 조선은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경의 조선침공설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정금(鄭錦)은 해도에 웅거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호서지방과 아주 가까웠다²³⁾”라는 말처럼, 우리는 정경의 근거지인 타이완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인지 같은 날 『실록』을 보면, 1673년 정체불명의 배가 부평(富平)에 도착하여 갈모(笠帽)를 대량으로 구입해 간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중국에 다녀온 사신으로부터, 정경의 군대가 청과 싸울 때 모두 갈모를 쓰고 조선군 행세를 했기 때문에 청에서 우리가 정경과 연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더라는 보고를 듣고, 그 정체불명의 배가 정경의 군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이는 물론 당시 여건상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정경이 조선 물품을 구입하러 올 만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단순한 헛소문에 조선 전체가 호들갑을 떠는 데에는 이러한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다.

4. 도선의 예언서와 정경, 그리고 정진인

『정감록』으로 대표되는 조선시대 예언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은 ‘정’씨 성을 가진 인물이다. 이는 『도선비결』, 즉 도선이 지었다는 예언서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전하는 『도선비결』을 보면 “한 나라가 편안해지니 어느 누구의 공인가? 오로지 전읍(奠邑)이 총명하고 신기하며 예지롭다”며, 전읍(奠邑), 즉 정(鄭)씨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면 도선 명의의 예언서에 정씨가 등장하는 것은 언제일까? 정확한 것은

22) 林田芳雄(2004) 『鄭氏台灣史—鄭成功三代の興亡実紀』, 汲古書院, p.85.

23) 『숙종실록』, 숙종 1년 6월 3일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7세기 후반에는 도선 명의의 예언서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으로 정씨가 등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인용을 보기로 하자.

금사가 이번에 활약이 컸기에, 오삼계가 금사에게 “이번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한다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이 조선에 전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금사로 말하자면 정씨이기 때문에 조선 6대성에 들어가고 (조선에서의) 유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5, 6백 년 전에 승려 도선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말세에 관해 적어놓은 책에 5백년 쯤 뒤에 정씨가 조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아래 것들이 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²⁴⁾

1675년(숙종 1) 11월 8일 쓰시마도주가 막부에 보낸 「조선에서 들은 풍문에 관한 각서」란 보고서의 일부분으로, 소위 삼변의 난과 관련해 조선에서 돌고 있는 소문에 관해 보고한 내용이다. 여기서 ‘금사’란 정경을, ‘이번 싸움’이란 소위 ‘삼변의 난(1673-1681)’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정경이 삼변의 난에서 커다란 공을 세웠기에 오삼계가 정경에게 조선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마침 도선의 예언서에도 장차 조선을 정씨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어 정말로 정경이 조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예언서가 현전하는 『도선비결』과 얼마나 같고 다른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서를 통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당시 도선이 지었다는 예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통일신라 말기의 승려인 도선이 바로 뒤에 오는 고려가 아니고 조선의 운명을 예언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도선이 지었다는 다른 많은 책들과 마찬가지로 후대인의 위작일 것이다. 그렇지만 또한 정씨에 의해 조선이 멸망할 것이라는 도선 명의의 예언서가 이 시기에 존재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이 1675년은 이러한 이야기가 왜관을 통해 막부에 보고된 연도이므로, 도선 명의의 예언서는 이보다 더 이른 시기에 유포되었을 것이다.

둘째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인물로 정씨가 특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건국 초부터 있었다. 그러나 조선을 멸망시키는

24) 林春勝·林信篤編(1981) 「朝鮮國ニ而風說之覺書」 『華夷變態』上, 동양문고총간제15, 동방서점, pp.135-136.

주체가 아직 특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체로 진인(真人)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17세기 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17세기 말 이후 숙종조에 등장하는 각종 역모사건에서는 그 주체로 정씨가 자리를 잡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²⁵⁾. 그리고 그 주체로 김씨나 이씨가 아니고 정씨가 등장하는 것은 민중들의 집단적 기억 때문²⁶⁾이라고 한다. 즉 민중들이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 반대하다 죽은 정몽주, 조선 건국의 주역이었으나 방원에게 제거된 정도전, 선조 때 역적으로 몰려 죽은 정여립, 영조 때 반란에 연루된 정희량 등을 잊지 못하고 새로운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셋째 정경이 조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는 정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즉 도선의 예언서에 정씨가 조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 정경도 마침 정씨이므로 정말로 이 예언대로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오삼계가 정경에게 조선을 지배하라고 했다는 소문까지 퍼져 있었다. 당시 조선에는 오삼계의 세력이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소문은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로써 타이완의 정경도 새로운 정씨 왕조를 세우는 인물, 즉 정진인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조선을 만드는 인물에 외국인도 포함되었다는 말이다. 물론 그 이전에는 이씨를 대신할 정씨가 모두 조선인이었다. 그런데 17세기 말이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 정씨가 반드시 조선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당시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679년(숙종 5) 3월에 있었던 강화 흥서사건의 투서자 이유정은 일본을 거쳐 중국에 가서 주씨(朱氏)를 세워 천하를 정한 다음 정경과 함께 돌아오려 했다²⁷⁾고 하며, 같은 해 12월 임창군과 임성군의 유배지 변경 시 허적이 제주도는 정금이 사는 곳과 가깝다고 걱정하는 대목²⁸⁾이 있다. 또한 1682년 노계

25) 김우철(2012) 「조선 후기 변란에서의 정씨(鄭氏) 진인(真人) 수용 과정」 『朝鮮時代史學報』 60호, 조선시대사학회, p.88.

26) 백승중(2012) 『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pp.240-242 이에 대해서는 김탁(2005) 『정감록』, 살림, p.68)이나 김우철(2012)(앞의 논문, p.99) 등 다른 연구자들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27) 『숙종실록』, 숙종 5년 5월 2일

28) 『숙종실록』, 숙종 5년 12월 28일

신의 고변 사건에서는 노계신과 함께 유배생활을 하던 오시항이 정씨가 조선을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정경이 다스리는 타이완의 동녕왕국으로 가려고 했다²⁹⁾는 내용의 진술이 나온다. 이는 물론 노계신이 조작한 이야기지만, 앞에서 본 「조선에서 들은 풍문에 관한 각서」의 이야기처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정씨, 즉 정진인 속에 정경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682년 5월에는 황해도 평산군 허사 앞 초도에 황당선(荒唐船)³⁰⁾ 9척이 10여 일간 머물다 간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허사 첩사 장후량이 이를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했다³¹⁾. 다소 과한 처벌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는 당시 이 이양선이 정경의 군대였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같은 해 10월 입술 3고변으로 역모에 몰린 왕족 이수운(李秀胤)이 심문 도중 ‘정금의 이야기를 왜 헛소문이라 하는가? 정금의 군대가 이미 허사에서 모습을 나타내었다. 듣건대, 그 배에 풍신이 좋고 금관자를 단 자가 장후량의 생일잔치에 참석했다가 시종하는 두 사람이 해가 저물어 빨리 돌아가기를 재촉하자 바로 수상한 배로 돌아갔다’³²⁾고 한 것을 보면, 당시 이 황당선이 정경의 군대라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정경이 한강에 나타나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목숨만 보장해 준다면 아무리 정경이라 해도 백성들이 환영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결국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조선왕조를 대신할 인물로 정경을 은근히 기다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정경은 1681년 1월에 죽었으니까 이 입술 3고변이 있었던 1682년에 정경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당시 타이완의 동녕왕국은 정경의 아들 정극상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은 당시 조선에서 이처럼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심지어 당시 “정금에 대하여는 혹은 정지룡의 손자라 말하고 혹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말한다³³⁾”는 『실록』의 기사처럼,

29) 「입술년 노계신 신문기록」 『추안금국안』 9권, p.492.

30) 이영(2018)의 「황당선의 출현과 조선의 대응」(『일본문화연구』 65, 동아시아일본학회)에 의하면, 황당선이란 조선 중기 이후 한반도 연안에 출몰한 이국선을 말한다.

31) 『숙종실록』, 숙종 8년 5월 9일

32) 「입술년 역변을 고한 세 가지의 옥사와 김환(金煥)·김중하(金重夏)·김익훈(金益勳)의 아방(兒房) 밀계(密啓) 노·소론의 분열」 『숙종조 고사본말(肅宗朝故事本末)』, 『연려실기술』 제34권

33) 『숙종실록』, 숙종 1년 6월 3일

정경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씨 대신 정씨가 조선을 다스릴 것이라는 도선의 예언서가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왔을 것이고, 정경이 정말로 조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정씨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즉 정씨 성을 가진 진인이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예언서가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씨 성을 가진, 그것도 중국을 뒤흔들어 놓을만한 군사력을 보유한 정경의 등장은 조선조정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에게는 다시없을 찬스였을 것이다. 조선인이 아닌 정경이 정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당시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진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사상적 유연성, 다시 말해 상황이 변하면 외국인도 진인이 될 수 있다는 확장성이, 19세기 초 청국인 신부 주문모나 20세기 미국 대통령 트루먼을 진인으로 간주³⁴⁾하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5. 남은 문제들 -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도선의 예언서에 의해 정경이 정진인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이를 요약하는 대신 정경이 다른 예언서에 끼친 영향의 흔적을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기로 하자.

조선시대 예언서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 중에 ‘인천과 부평 사이에 천 척의 배가 정박한다’란 것이 있다. 『감결』에는 “신년(申年) 봄 3월, 성세 가을 8월에 인천과 부평 사이에 밤중에 배 1천 척이 정박하고”란 구절이 있고, 『무학비결』에는 “천 척의 배가 남쪽 물가에 이르리라”, “하룻밤 새 천 척의 배가 이를 것이다”는 문구가 보인다. 『서산대사비결』에서는 “만일 성스러운 해를 만나면 천 척의 배가 갑자기 인천과 부평의 넓은 들에 정박할 것이다”라 했다. 물론 이 표현은 단순히 예언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반란 세력들이 사람들을 규합할 때도 사용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1755년(영조 31) 나주 패서 사건의 관련자들은 비기에 “어느 해에는 인천과 부평 사이에 천 척의 배가 밤에 정박한다”³⁵⁾는 말이 있다며, 마치 금방이라도 반군의 배가 도착할 것처럼 소문

34) 주문모나 트루먼을 진인시한 것은 백승종의 『정감록 미스터리』(푸른역사, 2012, 84쪽-102쪽)를 참조할 것.

을 퍼뜨렸다.

그런데 이처럼 위협 세력의 배가 부평 근처에 나타난다는 발상은, 이미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1673년 정경과 관련한 에피소드에 등장한 바 있다. 즉 정경의 군대가 부평에 나타나 조선의 갈모를 대량으로 구입해 갔다는 소문말이다. 뿐만 아니라 1682년 5월에는 황해도 초도에서 황당선이 10여 일간 머물다간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 황당선이 정경의 군선이란 소문이 퍼졌다. 물론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정경의 군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조선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 표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편 이 나주사건의 관련자들이 실제로 ‘정경 일가’를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1758년 이익이 제자 안정복에게 보낸 편지에 “근년에 옥에 갇힌 수인들이 인용하는 바, 해상진인이 또 정경의 아들이라 하는데 이는 모두 속이는 말이다³⁶⁾”라는 구절이 나온다. 즉 1758년 무렵에 옥에 갇힌 죄수들이 정경의 아들이 해상진인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 죄수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 다만 섬에서 군사를 이끌고 나와 조선을 없애고 새 왕조를 이룩한다는 해상진인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역모와 관련된 사람들로 추측된다.

이 무렵의 역모 사건으로는 1748년(영조 24) 4월 청주와 문의에서 적발된 패서 사건과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나주의 패서 사건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근년’이라 했으므로, 10년 전 사건인 청주와 문의 사건은 제외해도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익이 말한 ‘근년에 옥에 갇힌 수인’이란 바로 이 나주사건의 관련자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더구나 그들은 해도에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해도에 근거지로 갖고 있는 정경과 그 아들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실록』이나 『추안금국안』 같은 공식기록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도선비결』에 나오는 ‘호도 아니고, 왜도 아니다(非胡非倭)’란 표현이나 여러 역모사건에 등장하는 ‘왜 같지만 왜가 아니다(似倭非倭)’는 표현도 정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서는 밝히지 못했다. 아마 영원히 밝히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경이 도선의 예언서를 비롯하여 현전하는 여러 예언서에 유·무형의 영향을 끼친 점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35) 「을해년 2월 역적 윤지 등의 신문 기록」 『추안금국안』 21권, p553.

36) 「与安百順(戊寅)」 『星湖先生全集』 卷26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역비변사등록』 32권, 36권
『성호선생전집』 권 26
『연려실기술』 34권, 36권
『추안금국안』 9권, 21권
- 김 탁(2005) 『정감록』, 살림, p.68.
백승중(2007) 『예언가 우리 역사를 말한다』, 푸른역사, pp.17-32.
_____ (2012) 『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pp.240-242.
진순신(1995) 『중국의 역사』 11, 권순만 외 옮김, 한길사, pp.26-33.
강창룡(2004) 「17世紀 中葉 中国人의 濟州 漂到 - 顯宗 8年(1667) 明나라 林寅觀 一行의 濟州 漂着과 處理를 中心으로」 『耽羅文化』 25,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pp.28-32.
김기덕(2006) 「한국 중세사회에 있어 풍수·도참사상의 전개과정」 『한국중세사연구』 21, 한국중세사학회, p.147.
김문식(2012) 「成海庇이 증보한 『丁未通信錄』」 『진단학보』 115, 진단학회, pp.100-102.
김우철(2012) 「조선후기 변란에서의 정씨(鄭氏) 진인(真人) 수용 과정」 『朝鮮時代史學報』 60호, 조선시대사학회, p.88.
이 영(2018) 「황당선의 출현과 조선의 대응」 『일본문화연구』 65, 동아시아일본학회, p.202.
이태진(1994) 「한양 천도와 풍수설의 패퇴」 『한국사 시민강좌14』, 일조각, pp.44-69.
장지연(2000) 「여말선초 천도논의에 대하여」 『한국사론』 4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p.23.
최병헌(1975) 「도선의 생애와 나말여초의 풍수지리설」 『한국사연구』 11, 한국사연구회, pp.101-146.
- 林春勝, 林信篤(1981) 『華夷變態』 上, 東方書店, pp.107-109, pp.135-136.
林田芳雄(2004) 『鄭氏台灣史—鄭成功三代の興亡夷紀』, 汲古書院, p.85.

논문 투고 일자 : 2019. 06. 30.
논문 심사 일자 : 2019. 08. 02.
게재 확정 일자 : 2019. 08. 05.

 <要旨>

道誂の予言書と鄭經、そして鄭真人

鄭応洙

1673年11月、三藩の乱が勃発すると、台湾の鄭經もこれに呼応し、一時は揚子江以南一帯、四川省、陝西省が彼らの支配下に入った。すると、朝鮮で「私たちが彼らに合流して清を攻撃すべきである」という主張が登場する。文祿・慶長の役の時、明が朝鮮を助けてくれたので、明に対する義理を守るために、鄭經と連合して清を攻撃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だ。しかし、この主張が貫徹されないと、今度は義理のない朝鮮を懲らしめようとして、鄭經が侵攻してくるという噂が広がる。

当時、朝鮮では、鄭氏が朝鮮を支配することになるという内容の道誂の予言書が流布されていた。そこへ、ちょうど鄭經が鄭氏であるうえに、現に朝鮮を滅亡できる武力をも所有していたため、この予言書と結びつく最適の人物になった。こうして、台湾人の鄭經も、新しい鄭氏王朝を作る人物、すなわち、鄭真人の仲間になることとなった。つまり、新しい朝鮮を作る人物のなかに、外国人も含ま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後日、清国の神父の周文謨さんや米大統領のトルーマンを真人と見なしたのも、すべてこれと関連があることだろう。

Dosun's prophecy, Zhèng Jīng and Jeong True Man

Chung, Eung-Soo

At the outbreak of Revolt of the Three Feudatories in November 1673, Zhèng Jīng in Taiwan also responded and a large area south of the Yangtze river including Sichuan Province and Shǎnxī Province was under his rule. Then, a voice calling for invasion into Qing began to come to the stage in Chosun. They claimed that Chosun should cooperate with Zhèng Jīng to attack Qing, mainly because Ming helped Chosun in Japanese invasion of Chosun in 1592. However, their strong opinion was not accepted. Then, a rumor spread that Zhèng Jīng would attack disloyal Chosun.

At that time, Dosun's prophecy was in circulation that a leader named Jeong would govern Chosun. Zhèng Jīng happened to have that name and he had enough military power to destroy Chosun. Thus, Zhèng Jīng living in Taiwan was considered as a probable candidate for Jeong True Man, though he was a foreigner. In the same line of thought, Zhōu Wénmó, a Qing priest, and Truman, a US President, were considered as a True Man.